강은 하염없이 노을 따라 흐르고, 새들은 푸른 강물 힘차게 오르네

파평면에 위치한 놀노천의 S자 하천(위).
적성면 자장리에서 본 임진강(왼쪽).

평화누리 파주 넷째길의 시작은 율곡 이이 선생이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고 시를 썼던 화석정 임진나루에서 시작해 두지나루까지 임진강변을 따라 총 15.6km(율곡2리-파평중학교-장파사거리-황포돛배, 4시간10분 소요)를 걷는 길이다. 코스의 출발은 율곡2리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해 두포리 파평중학교를 지나 임진강의 절경으로 꼽히는 적벽 산책로를 거쳐 임진강과 들과 산을 넘어 두지나루의 황포돛배에 이르는 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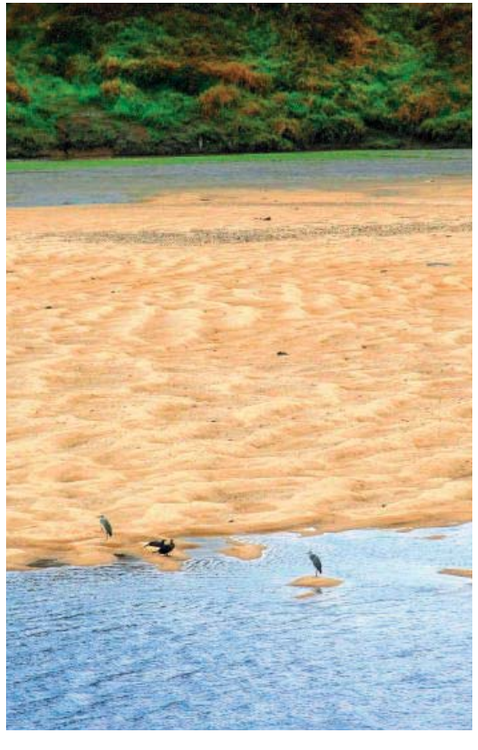
화석정에 깃드는 임진강변의 노을을 바라보며 둘째길을 마칠 때와는 달리, 오늘은 임진강에서 피어오르는 화석정의 아침 안개가 무척 상큼하다. 서쪽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은 시작과 끝을 안개 속에 감춘 채, 참 시리고 푸르게 흘러만 온다. 37번 국도를 따라 두포리 쪽으로 가는 길로 접어든다. '강변 따라 걸을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사진도 찍을 겸 강변 쪽으로 들락날락해보지만 전부 민통선 경계지역이라 접근할 수가 없다. '원조어부집' 이라는 식당 간판 밑에 황포돛배까지 15.4km 남았다는 이정표를 지나 군부대를 지나고 쇠꼴마을 이정표도 지나고 무

슨 중공업이라는 간판을 지나니 두포3리 노인정이 나타난다.

마을을 벗어나 차도로 접어드니 민통선 마을인 해마루촌 이정표도 보이고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두포천이 나온다. 하천에 뾰족뾰족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어 처음에는 수해를 막기 위한 것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적의 탱크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용치' 라는 구조물이란다.

수십만 년 인간 숨결 흐르던 임진강, 분단 60년의 정적에 잠겨

파평면사무소(위).
임진강의 두루미.



이윽고 두포3거리가 나타나자 파주시에서 만든 돌장승 2개가 나란히 서 있고 그 밑으로 누리길 이정표가 있다. 이정표를 따라가다보니 단양우씨 망향제단이라는 입석이 나타난다. 망향제단이면 틀림없이 임진강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웠으리라고 생각하며 제단으로 들어서니 예상대로 임진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은 언덕 아래에 있다. 꽤 높은 언덕이 강줄기와 땅을 구분하고 있다. 강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흡사 절벽 같은 직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 언덕에 밧줄을 이리저리 늘어뜨려놓거나 사다리를 꽁꽁 이어서 길게 매달아놓았다.

임진강에 한가로이 떠 있는 나룻배가 임진강의 풍경을 더욱 멋들어지게 만들어주고 있고, 강 옆에 들어선 참호들과 지뢰가 떠내려온다는 경고문만 없으면 '여기가 민통선인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평화로운 정경이다. 강둑의 버들가지가 철을 잊은 듯 이파리를 내민 채 바람에 하늘거리고, 강물엔 물새들이 차오르며 생긴 파문이 길게 이어진 채, 강물은 서쪽으로 하염없이 흘러간다. 수십만 년 동안 사람과 함께해온 임진강이지만, 이제 강의 주인은 철새와 물고기들이 됐다.

망향제단 옆 산길로 접어들어 임진강을 구경하며 걷다보니 멀리 금파리 마을이 보인다. 금파리는 금곡리와 장파리가 합쳐서 된 지명인데, 바다와 강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구석기 시대부터 정착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가꿔온 곳이다. 특히 금파리 구석기 유적에서는 타원형으로 생긴 움집터가 발견되기도 한 유서 깊은 지역이다. 하산 끝 무렵에 농협 창고를 지나니 파평면사무소가 나타난다. 넓은 공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면사무소에서 나와 멀리 금파배수펌프장을 보며 금파리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놀노천이 나타난다. 놀노천 다리를 건

임진강변의 적벽.
장파리의 돌장승(아래).

너자마자 누리길 이정표가 제방길을 가리킨다. 제방길로 넘어가기 전, 놀노천의 습지하천이 인상적이다. 갈대와 케케묵은 씀바귀, 세어빠진 냉이가 지천으로 깔려 있는 습지하천은 이름 모를 새들의 조용한 쉼터인 듯 철새가 많다. S자로 꺾어진 하천을 따라 조심스럽게 하천 둑을 따라 걸어가니, 37번 도로 끝단의 놀노천교와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이 나타난다. 하천 둑방을 따라 이어진 텃밭과 수풀은 임진강의 고즈넉한 정취를 품고 있다.

화산의 용암이 흘러 형성된 임진강 적벽

제방길을 따라가다보면 37번 국도 밑으로 굴다리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 우회전하면 강변 산책로가 나온다. 이 길이 임진강 적벽 산책로다. 왜 적벽일까? 해 지는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돼 용암지대층이 붉은빛을 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책로는 멋있게 꾸며져 있지만 적벽은 볼 수가 없다. 산책로 발 밑이 바로 적벽이기 때문이다. 황포돛배를 타면 임진강에서 적벽을 감상할 수 있단다. 임진강 일대에 언덕이 높이 형성된 것은 바로 그 옛날 이 용암층이 강가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아쉬움을 달래며 산책로를 걸으니 군데군데 참호와 전봇대에 매달린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긴장감을 자아낸다 . 임진강변 모래톱에는 철새들이 날갯짓을 멈추고 쉬고 있는데….

산책로가 끝나는 부분에 전진교라는 다리가 있고 다리 너머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강변길은 이 다리에서 끝나고 다시 오른쪽 37번 국도 밑으로 접어드니 장파리 마을이다.

매운탕집이 어지간히 많다고 생각하며 장파사거리에서 평화누리길 이정표를 발견하고 가리키는 대로 장좌리 방향으로 접어든다. 제법 가다보면 우측으로 농로가 나타나는데 두 갈래 길이다. 이 중 우측으로 가라는 표시가 돼 있는 리본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접어든다. 우측의 공동묘지를 바라보며 저기에도 이름 모를 용사들의 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걷다보니 농로가 끝나고 산길로 접어든다. 왼쪽 산등성이로 인삼밭이 많다. 과거 개성과 파주 지역이 인삼으로 유명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른다.

두지나루의 황포돛배

황포돛배까지 5.6km 남았다는 누리길 이정표가 반갑게 맞이한다. 좁은 산길로 접어들어 고개를 넘으니 자장리 마을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추수가 끝난 논과 배추밭을 구경하며 걷다보니 3.2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임진강 전망대라는 입간판이 서 있어 들어가보니 전망이 썩 괜찮다. 멋진 정자도 하나 지어져 있고 강변의 조약돌도 예쁘다. 때마침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 오르니 더욱 환상이다. 피곤하더라도 꼭 들러보시라.

다시 누리길로 복귀해 자장리 마을을 관통하며 미끄럼틀이 요란하게 서 있는 건물 앞을 어린이집이려니 하고 지나는데 전통문화 체험관이란다. 마을을 빠져나오니 가을걷이가 끝난 농로로 접어든다. 농로를 한참 걸으면 다시 산길이다. 산길 옆에는 율곡로라는 대로가 씽씽 뻗어 있고, 우리는 산속을 치고 올라간다. 여름 수해의 흔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길이 험하다.

산길이 끝나 도로와 만나는 부분에 예쁜 우체통이 하나 서 있다. 우체통과 큰 도로 사이로 누리길 리본이 달려 있는 것이 보인다. 언뜻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올라서니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소로가 산 능선 쪽으로 뻗어 있다. 이런 곳에서는 리본이 큰 구실을 하는구나 생각하며 소로로 접어드는 순간, 정말 큰 닭만한 꿩이 푸드득 날아오른다.

아! 행복하다. 누가 이런 행복을 알랴?

길 양옆으로는 이름 모를 잡풀들이 말라붙어 큰 갈대밭 같은 모양새를 하고 우리를 맞이해 준다. 멋있어서 사진을 몇 장 찍고 산 정상 쪽으로 걸어 올라간다. 호젓한 산길을 우리만 걷고 있으려니 아쉽고, 올라가다 뒤돌아보니 이 또한 멋진 그림이다. 산 정상을 지나 내려가면서 이름 모를 꽃들을 구경하다보니 저 멀리 건물이 하나 보인다.

내려와 보니 황포나루 사무실이다. 그 옆의 꽤 큰 주차장에는 관광버스도 한 대 서 있고, 차가 많다. 사무실 옆 정자 마당에는 여행객들의 술판이 이미 벌어져 있다. 아! 현실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루터 쪽으로 향한다. 나루터에는 두지나루라고 쓰인 큰 입석과 황포돛배 한 척이 멋진 정경을 이루고 있다. 오늘의 종착점이다. G

글 · 사진 최영환(여행기고가)

두지나루의 황포돛배. 겨울철엔 돛배를 운항하지 않는다.

두지나루

임진강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질러 굽이치며 파주 탄현에서 한강과 만나 서해로 나간다. 파주시에는 임진강을 따라 70km의 DMZ(비무장지대)가 걸쳐 있다. 임진강 두지나루터는 6 · 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각종 지역 농산물을 실은 배들이 왕래하던 대형 나루였다. 연천의 고랑포구로 가던 배의 나루터로, 6 · 25전쟁 이전까지 승객과 생필품을 실어 날랐다. 황포돛배는 파주와 마포나루까지 소금, 새우젓, 인삼, 콩을 가득 싣고 한양을 오갔다고 한다. 두지나루에서 황포돛배를 타면, 고랑포 여울을 돌아 임진강 적벽을 돌아보며 약 45분간 강 여행을 한다. 황포돛배 길은 맑은 날이면 개성의 송악산이 뚜렷이 보이기로 유명하다.

교통 안내

● 율곡2리 : 넷째길의 시점

• 경의선 문산역 – 도보 5분(문산버스터미널) – 환승 시내버스 92번

〈자가용 이용 시〉 • 자유로 당동IC에서 37호선으로 진입해 6km 이동

● 황포돛배 : 넷째길의 종점

• 경의선 문산역 – 도보 5분(문산버스터미널) – 환승 시내버스 92번 – 적성버스터미널 하차 – 택시 5분

〈자가용 이용 시〉 • 자유로 당동IC에서 37호선 진입 후, 두지교차로에서 진출해 3분 소요